

World Network of Professional Lay Ministers



제 2 차 세계 전문 평신도 직무자 모임

2024 년 9 월 28 일-30 일

시노드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여러분,

우리는 이 시노드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작년 로마에서 평신도 직무자들의 첫 모임을 한 후, 우리는 평신도 직무자들의 세계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고 신학적으로 훈련 받고 사목적으로 양성되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전문 평신도 직무자들로 구성된 세계 네트워크입니다. 이번 모임에는 가나,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인도, 필리핀, 한국에서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평신도 교회 직무자, 사목 일꾼, 종교 교육자, 병원이나 요양원 사목 및 기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노달리타스 정신 안에서 제 2 회기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을 바탕으로 9 월 28 일부터 30 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노드 과정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이야기와 직무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침묵 속에서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친교, 참여, 다원성, 권한 부여라는 주제에 대해 식별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시노드적인 교회를 경험하고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임이 진행 중인 세계주교시노드의 대의원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정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노드적 토론 방식

우리는 3 일간의 모임에서 '성령 안에서의 대화' 방식을 소통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계와 상호 만남을 강조하는 과정 자체에서 더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고 경청할 때 시노드적인 토론이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신뢰를 구축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열되고 양극화되어 있는 오늘날, 시노드적인 경청은 분열을 치유하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친교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주제가 어렵거나 관점이 다를 때에도 시노드적으로 경청을 잘하면 대화

즐겁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교회 안에서 밝음을 만들어내고, 권한을 부여하고, 친교를 촉진하며, 우리를 함께 사명(mission)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시노드적인 교회는 사회의 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시노드적인 경청은 마음을 열고 회심을 불러오고 공동으로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decision-making)과 결정을 내리는 것(decision-taking)을 위한 여지를 만듭니다.

사이에서, 예언자적 목소리

평신도 직무자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사회적 공간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으므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긴장이 느껴지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다리를 놓는 소명이 있습니다.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 중요한 측면은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잘 들리게 하고, 단순히 그들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성, 상호 경청과 이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모든 목소리를 듣고 소중히 여기는 보다 포용적인 교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역할

사명을 수행하면서 공동의 시노드 여정을 함께 책임지는 일원으로서, 우리는 일치에 대한 열망과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평신도 직무자들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문 평신도 직무자들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당한 보수를 받고, 어떤 나라에서는 자원봉사를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평신도 직무자의 특별한 역할 때문에 평신도 직무자를 지원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의 사명과 공유된 경험이 우리를 연대감으로 하나로 묶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필요와 관심을 가진 공동체에 봉사하면서, 우리의 형제인 성직자들과 함께 일하며 항상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평신도 직무자들은 다양한 공동체와 상황에서 공동 책임, 포용, 친교를 위한 협력을 통해 시노달리타스를 증진합니다.

시노드 신학과 평신도 양성

신학적 양성은 평신도들이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의미 있는 대화에 공동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신앙 여정, 식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을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적, 영적, 지적, 사목적 역량을 촉진하는 통합적 양성은 사제직, 부제직, 수도 생활을 위해 양성되는 사람들과 함께 평신도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를 양성하는 공동체 생활의 맥락에서 신학 교육과 사목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 여부는 지역마다 크게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신도 신학자가 거의 없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은 더 적습니다. 더 많은 평신도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걷기

우리 평신도 직무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역동적인 시노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가 일치와 공동 사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노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하고, 더 많은 대면 만남을 수용하고, 더 깊은 친교를 증진하며, 모든 목소리, 특히 지구 남반구(global south)의 목소리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평신도 직무자들 사이에 세계 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노달리타스가 단지 일시적인 토론 과정이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교회가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한 미래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길을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의 상황 안에서 공동협력성(synodality)을 실천하고, 아직 시노달리타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세계 평신도 직무자들의 네트워크의 존재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열망이 여러분에게 격려와 영감을 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 년 10 월 8 일

제 2 차 세계 전문 평신도 직무자 모임 참가자

연락:

worldmeeting@bvpr-deutschland.de

<https://layministers.org/>